



한강변의 유채꽃(10F), 박송운 / 삼지건축사사무소

실체는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없으며
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.
 행동하는 순간 실체의 일부가 된다고 한다.
 그림을 그린다는 것, 자연의 감동을 기록하는 것,
 아무렴, 아름다운 한강을 좀 잘못 그렸어도 -